# 黑板勝美(구로이타 가쯔미)를 통해 본 식민지와 역사학

李 成 市

머리 말

- 1. 『조선사』 편수와 구로이타 가쯔미
- 2. 조선고적조사와 구로이타 가쯔미

3. 구로이타 가쯔미의 고적보존정책과

그 배경

맺 음 말

#### 머리말

구로이타 가쯔미(1874-1946)는 일본 고문서학의 체계를 수립하고 『대일본 고문서(大日本古文書)』의 편찬과 『신정증보 국사대계(新訂增補國史大系)』의 교정 출판에 힘써 고문서와 전적의 출판과 보급에 커다란 발자취를 남겼다. 또 그는 혼자 힘으로 일본고문화연구소를 창설하여 후지와라규(藤原宮) 유적의 발굴조사를 지도하는 등 문화재의 조사·보존에 있어서도 지도적인 역할을 수행했다. 또한 동경제국대학 국사학과 교수로서 30년 이상 연구·교육활동을 겸하기도 한 구로이타의 공적은 일본 사학의 다방면에 걸쳐 있다. 한마디로 구로이타가 근대 일본사학에 있어 차지하는 위치는 상당히 크다고하겠다.(1)

그러한 구로이타가 40대 전반부터 만년에 걸쳐 『조선사』 편수와 조선고적 (古蹟)의 조사 보존에 심혈을 기울였다는 사실은 그다지 알려져 있지 않다. 그러한 활동이 그의 다방면에 걸친 업적의 일부분에 지나지 않는다고 생각

<sup>(1)</sup> 黑板勝美의 일반적인 업적과 그 평가에 대해서는 黑板博士記念會 編『古文化の保存と研究』 告川弘文館、1953년)을 참조, 본고에 관계된 주요 著作은 『虚心文集』(전 8권, 吉川弘文館、1939년), 黑板勝美先生生誕百年記念會 編『黑板勝美先生遺文』(吉川弘文館、1964년)을 참조.

하기 때문인지도 모른다. (2) 그러나 구로이타가 혼신의 힘을 기울인 『조선사』 편수와 조선 고적의 조사보존이라는 두가지 일은. 나카무라 히데다카(中村榮孝)의 말처럼 "그 취지를 봐도, 그 성과를 봐도, 영원히 기억되는" 조선총독부의 문화사업이었다고 일컬어질 만큼, 전쟁 후에 있어서까지도 일본인의 대단한 자부와 대상인 것이다. (3) 구로이타는 일제의 이러한 대규모 국가프로 젝트에 적극적으로 관여해 계획 입안에서부터 완성에 이르기까지 "창의에 넘치는 기획과 넘치는 실천력을 가지고"시종일관 진두에 서서 사업을 지휘하였다. (4)

예를 들면 16년에 걸친 "조선사』 편수에 있어서 구로이타의 활약은 다음과 같은 일화로 전해진다. "봄·여름의 휴가는 물론 연말연시의 휴일에도 기회가 있는 대로 조선을 왕래하고 예산절충에 임하며, 편수 기획을 지도하고 사업의 진행 감독·격려하고 때로는 왕래하는 차안에서도 총감·총독 등과함께 행동하며 자세히 경과를 보고하고 장래의 계획을 논의했다"는 것이다. (5) 이를 통해 "조선사』 편수가 총독부 최대규모의 사업일이었을 뿐만 아니라. 구로이타 자신에게도 수많은 활동 중 무엇보다 정열을 쏟은 사업이었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다.

또, 조선고적조사에 있어서도 그의 활동에는 놀라운 면이 있다. 즉 구로이타는 1916년의 고적조사위원회 발족과 동시에 중심적인 역할을 수행하였으며, 1931년에 우가끼 가즈나리(宇垣一成)총독에 의해 재정긴축정책이 시행되어 고적보존사업이 곤란하게 되자 그는 박물관의 외곽단체(조선고적연구회)를 창설하여 외부자금을 도입함으로써 조사가 계속 진행되도록 했던 것이다. 그리하여 조선고적연구회는 1945년에 이르기까지 총독부의 고적 보존사업을 실질적으로 담당하게 된다. (6)

이러한 식민지 조선에서의 구로이타의 정력적인 활동을 추적하다 보면 다

<sup>(2)</sup> 예를 들면 『國史大辭典』(제4권, 吉川弘文館) 『歷史學事典』(제5권, 歷史家와 그 作品, 弘文堂) 등에 수록된「黑板勝美」를 참조.

<sup>(3)</sup> 中村榮孝,「朝鮮史の編集と朝鮮史料の蒐集」(『古文化の保存と研究』前掲書) 654里,

<sup>(4)</sup> 同上

<sup>(5)</sup> 同上, 693电.

<sup>(6)</sup> 藤田亮策「朝鮮古蹟調査」(『古文化の保存と研究』前掲書).

음과 같은 의문을 품지 않을 수 없다. 도대체 구로이타가 조선사 편수와 조 선고적의 조사보존에 관심을 갖게 된 동기와 배경은 무엇이었을까? 그것은 그의 역사학에 있어서 어떠한 의미가 있었던가? 그리고 그 사업은 그가 살 았던 시대의 일본 역사학과 어떠한 관계가 있었는가? 만약 관계가 있었다면 구로이타의 조선사 연구 태도는 현재 일본 역사학에 어떠한 형태로 살아있 는 것일까?

필자는 지금까지 일본에서 한국고대사 연구에 종사해오며, 일본 근대 역사학연구에 관해서 가지게 되었던 커다란 의문을 이미 저서와 논문으로 지적한 바 있다. 그것은 단적으로 말해서, 거시적(巨視的)으로 볼 때 일본 근대 역사학은 그 발생시기로부터 각인된 경향을 비판없이 지금까지 계속 유지해온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이다. 특히 발표자는 근데 일본의 국민국가 형성기에 있어 일본 역사학이 국민의식형성이라는 국가정책과 관련해 일정한 역할을 담당해 왔다고 생각하고, 이 사실에 관련된 고대사의 구체적인문제들을 다툼으로써 명확히 해왔다. (7)

이 글의 목적은 이러한 문제제기의 일환이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일단 『조선사』 편수와 고적조사에 구로이타가 관여한 방법을 통해서, 지금까지와는 다른 시각으로 그 성격을 구명해 보고자 한다. 더불어 이러한 고찰을 토대로 『조선사』 편수와 고적조사가 단순히 일본의 식민지 지배정책의 하나 였음을 밝히는 데 머물지 않고 근대 일본 역사학에 있어 어떠한 의미를 갖게 되었는지를 검토해 보고자 한다.

## 1. 『조선사』 편수와 구로이타 가쯔미

『조선사』 편수사업의 기간은 일반적으로 1922년(大正 11)에 「조선사편찬 위원회규정」의 발표로 시작되어 1938년 『조선사』의 전권 간행이 완료된 16년간을 가리킨다.<sup>(8)</sup> 그러나 『조선사』 편수의 기점은 1916년에 총독부 중추원

<sup>(7)</sup> 李成市「古代史にみる國民國家の物語」(『世界』611, 1995년 8월), 同「近代國家の形成と日本史に關する覺え書き」(『現代思想』28-9, 1996년 8월), 同『東アジアの王權と交易』(青木書店, 1997년 7월).

에서 착수된 『조선반도사』 간행 사업에까지 좀더 거슬러 올라갈 수 있다는 것은 널리 알려진 일이다.

이 『조선반도사』 편찬 사업은 1915년 5월 구관제도조사(舊慣制度調査)가 참사관실에서 중추원으로 이관될 때 조선사 편찬이 중추원 사무의 중요사업으로 간주되고, 구관제도 중에서도 중요사업으로서 재확인된 일이 계기가되었다. 그 편찬의도에 대해서 고마츠 미도리(小松綠, 중추원서기관장)는 대체로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즉 "종래 조선에 정확히 준거(準據)할만한역사책이 없었기 때문에, 현재의 입장으로서는 냉정한 태도로 허심탄회하게역사상의 사실을 그저 선의로서 기술하여 유일하게 완전무결한 조선사를 편찬하는 것이다"라고 한 것이다.(9)

이것은 1916년(大正5) 1월에 수사(修史) 사무의 담당(찬의 및 부찬의)에게 사령을 교부하며 말한 "인사"에 불과하며, 나중에 말한 것과 같이 그 구체적인 편찬 의도는 물론 다른 곳에 있었다. 여하튼 동년 3월에 미우라 슈코(三浦周行, 경도제국대학 교수), 이마니시 류(今西龍, 동 강사)와 함께 구로이타 가쪼미(黑板勝美, 동경대학 조교수)가 촉탁으로 이 사업에 참가하게된다. 구로이타가 어떠한 사정에서 어떠한 생각을 갖고 이 사업에 참가하게되었던가를 직접 알 수는 없다. 그러나 이해 7월에 데라우찌 마사타카(寺內正毅)총독의 「조선반도사편찬요지」는 이를 알 수 있게 하는 데 참고가 된다.

즉 "당시 한국 안팎에 있어서, 현재와의 관계를 뺀 종래의 고사(古史)에 의존해서 독립국의 꿈을 꾸는 저작이나, 『한국통사』와 같이 합병을 비판하는 서적이 나돌게 되어 인심을 동요시키고 있다. 이것을 절멸시키려고 금지하며 억압하면 오히려 반발을 사므로, 공명하고 적합한 역사서적을 만들어이러한 움직임에 대항하는 것이 최상의 지름길이며, 이것이 반도사 편찬의

<sup>(8) 『</sup>朝鮮史』의 편집사업에 관해서는 朝鮮總督府 中樞院 『朝鮮舊慣制度調查事業概要』(1938년), 朝鮮總督府 朝鮮史編修會「朝鮮史編修會事業概要」(『朝鮮史』 卷首「目錄・事業概要」所收, 1938년), 中村榮孝,「朝鮮史の編集と朝鮮史料の蒐集」(『古文化の保存と研究』 前掲書), 金性玟「朝鮮史編修會의 조직과 운용」(『韓國民族運動研究』 3, 1989년 5월) 참조.

<sup>(9)</sup> 朝鮮總督府 中樞院『朝鮮舊慣制度調查事業概要』(前掲書) 139년.

이유이다"라고 하였다. 또 "반도사 편찬의 주안은 첫째 일본인과 한국인이 동쪽임을 명확히 하는 것, 둘째, 고대부터 시대의 흐름에 따라 피폐되고 빈약하게 된 것을 기술하여 합병에 의해 한국민이 행복을 누릴 수 있게 되었다는 점을 논술하는 것에 있다"고 명기하고 있다.<sup>(10)</sup>

말할 것도 없이 데라우찌가 비판의 대상으로 삼은 것은 19세기말부터 20세기초의 개화기에 간행된, 단군을 적극적으로 논하여 민족정신을 고무한 역사서적이나 박은식의 『한국통사』등을 가리키는 것이다. 이를 통해 민족의 기원과 한일합방의 부당성을 한민족의 입장에서 기술한 역사서 보급에 총독부 측이 위기감을 느꼈으며, 그것이 조선사 편찬에 임하게 된 직접적인계기가 되었음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이러한 『반도사』 편찬에 촉탁으로 관계를 맺은 구로이타가 처음으로 조선을 방문한 것은 『반도사』가 착수된 1915년 7월보다는 조금 빠른 그해 봄이었다. 구로이타 자신에 따르면, 3개월 정도 충청도·경상도·전라도의 지세(地勢)를 조사하며 돌아다니고 그후 평양이나 다른 지역도 살피며돌아다녔다고 한다.(11) 이 여행으로부터 6년 뒤에 있었던 한 강연에서 그는이 여행이 오키노시마(沖の島)를 둘러싼 조선과 일본의 문화적 교섭에 판심을 갖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강조하다. 그러나 여행의 시기가 『반도사』 편찬의 계획 시기와 겹쳐지는 것만 보아도 구로이타의 말을 그대로 믿을 수는 없다는 것을 알 수 있다.(12)

그 외에도 구로이타는 이 강연에서 한국 문명의 기원이 평양 지역에 있다는 점과 그곳에 중국 문명이 최초로 이식되어졌다는 점, 또 이 여파로 일부 사람들이 한반도에서 일본 열도로 쫓겨날 수밖에 없었다는 점 등을 진술하

<sup>(10)</sup> 朝鮮總督府『朝鮮半島史編成ノ要旨及順序 朝鮮人名彙考編纂ノ要旨及順序』(1916 년) 4년.

<sup>(11)</sup> 이 때의 조사는 東京帝國大學에서의 출장 명목으로 행해졌다(黑板勝美「朝鮮史蹟遺物調查復命書」『黑板勝美先生遺文』前揭書). 더구나 그곳에는 4월 40일부터 7월 26일에 이르는 조사의 일정과 그 성과가 기록되어 있고, 總督府 계열 한국어신문인『每日申報』(7월 29일~8월 17일)에는 15회에 걸쳐 그 사이 조사의 개요가 黑板의 談話로 연재되어 있다.

<sup>(12)</sup> 末松保和는 黑板가 編修會의 창설에 앞서「大正 4년 무렵부터」總督府의 조사에 관계하고 있었던 것으로 회상하고 있다(末松保和・平野邦雄・田中健夫「朝鮮の研究と私」『日本歴史』560, 1995년 1월 28면).

여 일본의 민족적 기원이 한국에 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또 한편 청일·노일전쟁의 경위를 말하면서 합병에 의해 한국 국민이 진실로 완전한독립국민이 되었다는 것과 일본에의 의존에 의한 한국의 개화발전 필요성을역설하고 있다. (13) 재삼스럽게 지적할 것도 없이 이것은 『반도사』 편찬의목적과 같은 내용이다. 구로이타가 총독부 시책에 적극적으로 가담하여 사론(史論)을 전개했던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구관제도조사사업개요』에 의하면 『조선반도사』 편찬은 그후 자료 수집에 많은 시간이 걸려 예정대로 진행되지 못해 연기되고, 직원의 전출·사망 등으로 한때 사업이 중단되기도 했다. 그러다가 마침 1922년에 중추원 내에 신설된 조선사편찬위원회의 사업이 확대됨에 따라 일부 사업을 합친 후, 1924년 말에는 사실상 편찬 사업을 중단하게 된 것이다. 이 기록은 단순히 사업상의 변천을 기술한 것에 지나지 않지만, 관계자의 말에 의하면 그간의 사정은 결코 단순하지만은 않았다는 것을 짐작하게 한다.

즉 나카무라 히데다카(中村樂孝)에 의하면, 오다 쇼고(小田省吾, 학무국 편집과장) 등이 시대별로 조사집필을 진행시키는 데 필요한 자료 수집에 예상 외의 곤란이 있었기 때문에 계획이 연장되었고, 3·1독립운동을 계기로 한 통치정책의 전환이 이유가 되어 결국 사업이 완수되지 못했다고 한다. (14)

이러한 정세 속에서 1922년 12월에 「조선사편찬위원회규정」이 공포되어 동 위원회가 성립되었다. 이로써 『조선사』 편수와 조선자료 수집을 목적으 로 하는 수사(修史)사업이 보다 조직적으로 행해지게 되었다.

지지부진했던 『반도사』 편찬과는 별도로 이 신규 사업을 계획한 것은 역시 구로이타였다. 구로이타는 1922년 6월에 정무총감으로 취임한 아리요시 쥬이치(有吉忠一)와 동기동창이었는데, 아리요시를 통해 총독이 직접 구로이타에게 사업 참여를 요청하였고 이를 받아들인 구로이타가 조직에 관한 방안을 모색하여, 구체적인 사업계획 입안과 담당자 선택 등 편찬의 모든

<sup>(13)</sup> 黑板勝美「朝鮮の歴史的觀察」(『朝鮮』1921년 8월).

일에 관여하기 이른 것으로 알려져 있다.(15)

1924년 말에는 2년간에 걸친 실적을 토대로 좀더 국가사업으로서의 규모를 정돈하고 권위 있는 조직을 확립하기 위해 새로운 관제(官制)를 기획하여 조선총독의 관리 밑에 두는 독립관청이 설치되었다. 곧 1925년 6월 조선사편수회관제(朝鮮史編修會官制)의 공포였다. 이 조직확립의 구상은 아리요시 정무총감시대에 시작되어 구로이타가 새로운 총감 밑에서 실현시킨 것이다. 구로이타는 취임 직후여서 정무에 바쁜 신임 총독과 자주 회담을 가졌으며, 사업의 취지를 전달하기 위하여 직접 나서 중앙정부와의 절층에 임하는 등 오로지 계획실현을 위해 노력했다고 한다.(16)

그런데 조선사 편수에 1922년부터 1938년까지 총 98만엔(총독부청사 675만엔)의 예산이 투자되었으나, 연도별 예산은 계속 중액되기만 했다. (17) 사업 연장과 경비 증액으로 인한 방대한 예산 소요를 총독부가 인정했던 배경에 구로이타가 항상 사무담당을 감독하고 격려하며, 몸소 진두에서 지휘를 게올리하지 않고 예산 절충을 행했던 사실이 있다. (18)

이러한 조선사 편수의 중대한 전환점이 1925년(대정 14)에 있었다. 나카무라 히데다카는 당시를 회상하며 조선사 편수에는 특별한 정치적 의도가 없었다고 하지만, (19) 나이토우 도라지로(內藤虎次郎, 湖南)의 추천으로 편수주임(修史官)으로서 실무에 있어 중심적인 역할을 담당한 이나바 이와키치 (稻葉岩吉)는 당시 다음과 같이 말했다.

즉 "단군신앙은 최근 제창되어 급속도로 발전하여 이제껏 돌이켜 보지 않

<sup>(15)</sup> 同上、661면、末松保和도 朝鮮史 편집방침 결정에 관하여 黑板의 뜻 그대로 였다는 것을 서술하고 있다(「朝鮮の研究と私」前掲誌、28면)

<sup>(16)</sup> 中村榮孝「朝鮮史の編集と朝鮮史料の蒐集」(『古文化の保存と研究』前掲書) 666 日

<sup>(17)</sup> 朝鮮總督府 朝鮮史編修會『朝鮮史』(卷首 總目録・事業概要, 1938년) 114~119 면.

<sup>(18)</sup> 中村榮孝 「朝鮮史の編輯と朝鮮史料の蒐集」(『古文化の保存と研究』 前掲書) 669 現

<sup>(19)</sup> 中村榮孝「朝鮮史の編集と朝鮮史料の蒐集」(『古文化の保存と研究』前掲書) 663 면, 다만 中村 자신은 후년에 여러 가지 이유를 붙이려고 했던 결국, 朝鮮史編修事業이 총독부에 의한 조선통치를 위한 정치적인 사명을 띠고 있었던 것을 서술하고 있다(中村榮孝・田中健夫・北島萬次 「朝鮮史と私」『日本歷史』400, 1981년 9월, 50년).

았던 한국사 연구가 한국인 사이에서 커다란 기세를 형성하고 있다. 이미 일한동원론(日韓同源論) 등으로는 해결할 수 없게 되었기 때문에 조선총독 부는 적극적으로 조선사 편찬을 계획하여 이 정세를 바르게 이끌어 착각이 없도록 노력하는 한편, 시기를 가늠하여 조선사편수회를 공포하게 된 것이 고 그것이 대정(大正) 14년 봄의 일이었다"는 것이다. (20)

이 말에서 볼 수 있는 것과 같이 데라우치에 의한 「조선반도사편찬요지」 (1916) 이래, 『조선사』 편찬 목적은 시종일관 변하지 않았던 것이다. 총독부 측에서 본다면 상황이 악화되었기 때문에 계획을 수정하여 조직을 재편성하고 강화했다는 점이 진상에 가까운 것이다.

단군의 위치를 둘러싼 조선사편수회의 일본측과 한국측 위원간의 논의는 너무나 잘 알려진 사실이다. 이는 총독부 측의 편찬 목적에 깊이 관련된 가장 중요한 과제였기 때문에, 당연히 구로이타는 이나바와 함께 한국 측 위원의 논의를 억압하는 데 힘썼다. 그 경위는 『조선사편수회사업개요』에서보는 그대로이다. (21)

이상에서 말한 것과 같이 구로이타가 계획에 참여한 후 조선총독부의 『조선사』 편수사업은 당초보다 편찬사업의 확대·조직화가 꾀하여는데, 그것은 전적으로 구로이타의 계획 입안에 의한 것이었다. 그 편찬 목적은 주로 한국과 일본이 같은 조상과 같은 근원을 갖고 있음을 강조하는 것과 식민지배의 정당화에 있었으며, 구로이타는 이 목적에 따라 1915년의 『반도사』 편찬이래 계획에 참여하고 편찬 사업의 중심이 되어 마지막까지 사업 추진의 선도 역할을 담당하였던 것이다.

### 2. 조선고적조사와 구로이타 가쯔미

조선사 편수와 더불어 조선총독부가 중시해온 문화 사업이 고적조사이다. 이 사업도 일본인의 자부와 자찬의 대상이 되었다. 후지와 료사구(藤田亮策)

<sup>(20)</sup> 稻葉岩吉「朝鮮史研究の過程」(稻葉岩吉『世界歴史大系 11 朝鮮滿洲史』 平凡社, 1935년) 199년.

<sup>(21)</sup> 조선총독부 朝鮮史編修會「朝鮮史編修會事業概要」(前掲書) 19~71년.

는 조선총독부의 고적조사와 보존사업이야말로 일본인이 한반도에 남긴 다른 무엇보다 자랑스러운 기념비의 하나라고 단언해도 거리낄 것이 없다고까지 말하고 있다.<sup>(22)</sup>

이러한 조선총독부의 고적조사와 보존사업은 이미 통감부시대(1909년)에 탁지부(度支部)가 세키노 테이(關野貞)를 초빙하여 한반도 전역의 고건축 (古建築) 조사를 위촉한 것으로써 착수된다. 이듬해 10월 총독부가 개설되자 세키노의 고건축·고적의 조사는 내부지방국 제1과 소관이 되어 그 위상이 한층 강화되고 1913년에 기초조사는 완료되기에 이른다. (23)

이와 별도로 1911년부터 총독부 내부 학무국의 사업으로서 도리이 류조 (鳥居龍藏)에게 인류학·선사학의 조사연구가 위촉되었다. 이는 세키노의 연구에서 결여되어 있는 인종적·민족적 조사 및 석기시대의 조사를 보충하는 데 그 의미가 있었다고 한다. (24)

휴지타 료사구에 의하면 세키노, 도리이에 의한 조사는 데라우찌 마사다 카의 계획 발의에 의한 것이었다. (25) 그 중에서도 데라우찌에 관해 주목되 는 점은 세키노의 조사를 기반으로, 큰 책으로 중후하게 만들어진 도록(圖 錄)인 『조선고적도보(朝鮮古蹟圖譜)』의 간행이 계획되고 1916년에는 4권이 간행된 사실이다. 이의 의미에 대해서는 다음 장에서 상술하기로 한다.

다음으로 총독부는 위에서 말한 세키노의 고적조사사업과 도리이의 사료 (史料)조사사업을 병합하고 다시 이를 1916년 4월에 총무국 내로 이관하여 총독부 박물관이 통합 관장하도록 했다. 총독부 박물관은 1915년에 경복궁내에서 개최된 始政5年記念 物產共進會 때에 미술관으로서 세워진 것을 이어 받아 같은 해 말에 博物館으로 개관했다. (26) 또 1916년 7월에는 「고적 및 유물보존규칙」을 발표하여 고적조사위원회를 조직했다.

이 규칙이 주목되는 것은 일본 최초의 사적 보호법이며, 일본 내지(內地)

<sup>(22)</sup> 藤田亮策「朝鮮古蹟調査」(『古文化の保存と研究』前掲書) 327년.

<sup>(23)</sup> 同上 330명.

<sup>(24)</sup> 同上, 333면

<sup>(25)</sup> 同上, 334면,

<sup>(26)</sup> 朝鮮總督府博物館『博物館略案內』(朝鮮總督府, 1936년 3월), 藤田亮策「朝鮮古蹟 調査」(『古文化の保存と研究』前掲書) 334면.

보다 앞서 식민지 조선에서 시행되었다는 점이다. 일본에서는 1919년 「사적명승천연기념물법(史蹟名勝天然記念物法)」이 공포되어 동 보존위원회가 내무성에 제정되었지만, 한국에서 시행된 「고적 및 유물보존규칙」과 고적조사위원회의 제정은 일본에 비해 3년이나 앞서 실시된 것이다. (27) 그리고 「사적명승천연기념물법」이 예전부터 구로이타가 주창하고 있던 내용을 대부분따르고 있는 점을 보더라도, (28) 구로이타의 보존법에 관한 제언이 먼저 식민지 조선에서 실시된 것으로 볼 수 있다.

더구나 이 법령에 따라 한국의 고적조사는 총독부 스스로가 행하며 보존 관리의 행정사무도 모두 총독부 총무국 소속인 박물관이 행하도록 한 점에서, 이는 일본으로서는 "최초의 통일적 문화행정"의 경험인 것이다. (29) 요컨대 고적의 보존·조사의 실시에서 법령에 의한 지정·금지의 사무에 이르기까지, 통일적으로 박물관(총독부)이 관리하게 된 것이다.

이처럼 1916년이 고적조사사업에 있어 중요한 전환기였던 바, 이때에도 구로이타가 한 역할은 무시할 수 없다. 우선 보존법은 이미 말한 바와 같이 구로이타가 1912년 이후 제안하고 있었던 내용<sup>(30)</sup>으로 이루어진 것으로서, 그 중에서도 구로이타가 가장 강조한 점은 대장법(豪帳法)의 채용이었다. 즉 구로이타는 독일의 실례(實例)를 인용하면서 대장법의 채용이 많은 수고와 노력을 필요로 하지만 보존사업의 첫 걸음이며 불가결한 일임을 강조했다. (31) 확실히 「고적 및 유물보존 규칙」에는 구로이타의 주장이 그대로 받아들여져 있다. 그 뿐만 아니라 8개조(條) 중 5개 조항이 대장을 기초로 한 규칙으로 되어 있어 「규칙」 그 자체가 대장법을 골자로 하고 있음이 분명히 드러난다. (32)

더욱이 총독부 박물관이 문화재의 보존관리도 담당하게 한 것도 구로이

<sup>(27)</sup> 藤田亮策「朝鮮古蹟調査」(『古文化の保存と研究』前掲書) 342년.

<sup>(28)</sup> 黑板勝美 「古蹟遺物保存に關する研究の概說」(『古蹟名勝天然記念物』 1-3・1-6. 1915년 1・6월).

<sup>(29)</sup> 藤田亮策「朝鮮古蹟調査」(『古文化の保存と研究』前掲書) 335년.

<sup>(30)</sup> 黑板勝美「遺跡保存に關する意見書」(『史學雜誌』23-5, 1912년 5월). 同「史蹟遺物保存に關する研究の概說」(前掲書).

<sup>(31)</sup> 同上.

<sup>(32)</sup> 朝鮮總督府『大正五年度 朝鮮古蹟調査報告書』(朝鮮總督府, 1917년 12월) 3-5년.

타가 예전부터 강하게 주장하고 있었던 데 따른 것이고, (33) 그는 이 후 일본 국내에 대해 조선에서와 같은 정책의 시행을 재촉하는 발언을 하고 있다. (34) 어쨌든 1916년의 고적조사사업의 계기가 된 법제상(法制上)의 정비나 사업의 조직화가 고적조사위원으로서 참여하고 계획한 구로이타의 계획・입안을 기반으로 한 것임은 틀림없다.

그후 고적조사사업은 1931년 우가키(宇垣)총독 시절의 재정긴축정책에 의해 모든 사업이 지체되는 어려움을 겪게 된다. 서두에서 말한 것과 같이 구로이타는 이 사태에 즈음하여 박물관의 외곽단체(조선고적연구회)를 만들고 외부로부터 조사자금을 모아서 계속되는 학술조사와 총독부 보존사업을 실질적으로 지탱하였다. 그래서 1931년부터 1945년까지의 고적조사는 실제적으로 조선고적연구회의 사업이었다고도 운위되는 것이다. (35)

이러한 시책은 전적으로 구로이타의 개인적 노력에 의한 것이며, 또 그는 직접 우가키 총독, 이마이다(今井田) 총감에게 사업 진행상황을 자세히 말하여 이를 실현시키고 있다. 『조선고적조사보고』10권, 『조선고적도보』5권, 『조선보물고적도보』2권의 간행도 조선고적연구회의 지원에 의한 것이었다. (36)

조선고적연구회는 1931년에 평양과 경주에 연구소를 세우고 낙랑 문화와 신라의 고문화 연구를 하게 되었는데, 이 연구소의 연구원 인사(人事)에 이르기까지 구로이타는 일일이 관여하고 있었다. (37) 이미 앞 장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구로이타는 조선사 편수사업의 계획 입안과 그 추진을 적극적으로 행하고 있었으며 이와 동시에 고적조사사업에도 완전히 같은 역할을 수행하고 있었다는 것이 된다.

그러면 구로이타의 고적조사에 대한 열정은 어디에서 유래되었고, 그 사업은 무엇을 목적으로 한 것일까? 이러한 의문을 풀 수 있는 단서를 우선

<sup>(33)</sup> 黑板勝美「遺跡保存に關する意見書」(前掲誌) 제8장「保存法令と監督局及び博物館」 替る.

<sup>(34)</sup> 黑板勝美「國立博物館について」(『新公論』33-5, 1918년 5월).

<sup>(35)</sup> 藤田亮策「朝鮮古蹟調査」(『古文化の保存と研究』前掲書) 344년.

<sup>(36)</sup> 藤田亮策「朝鮮古蹟調査」(『古文化の保存と研究』前掲書) 349년.

<sup>(37)</sup> 藤田亮策「朝鮮古蹟調査」(『古文化の保存と研究』前掲書) 349-352면. 慶州研究 所의 有光教一 京都에서 黑板을 만나고 뒤에 경주에 부임하였다고 한다.

구로이타 자신의 발언과 행동에서 살펴보자.

예를 들면 구로이타는 고적조사위원으로서 1916년에 황해도 · 평안도 지역을 조사했는데. (38) 그 성과를 일반 인용으로 서술한 「대동강 부근의 사적」 (1916)에서 "조선 역사의 출발점"이 어디에 있는가를 직접 행한 조사와 관련지어 문제삼고 있다. (39) 거기에서는 결론적으로 중국 문명을 가장 빨리수용한 것은 평양이며 또 이 지역에 중국 문명이 미친 영향이 한민족의 이동 · 동요를 결과했으며, 나아가 일본 민족의 기원에도 파급됨을 시사하였다. 더욱이 조선 역사의 기원과 관련된 단군에 대한 사실을 그것이 최근의 신앙일 뿐이라 하여 간단히 부정하고 있다. 이는 앞서 언급한 1921년의 강연(「조선의 역사적 고찰」)과 비슷한 내용으로 되어 있는 것이다. (40)

이 논문에서 특히 중요한 점은 세키노 테이(關野貞)의 고적조사(『조선고적도보』)를 인용하여 고고학적으로도 낙랑 유적이 있는 평양이 최초의 중국문명 수용지이며, 그 곳이 조선역사의 출발점임을 강조하고 있다는 점이다. 그는 1923년 제1회 조선사편찬위원회에서 "역사는 언제 시작되고 언제 끝나는가 하는 것을 쓰는 것이 무엇보다 필요하다"고 역설하며(41) 한국측 위원의 단군조선・기자조선의 위치 설정에 관한 질문을 이나바(稻葉)와 함께 부정하였는데, 이는 구로이타에게 있어 고적조사가 단순히 유적의 조사보존이라는 의미에 머물지 않고 『조선사』 편수를 보완하는 중요한 과제였다는 것을 엿볼 수 있게 한다.

그리고 이는 조선사 편수의 중심을 담당한 이나바가 『조선사연구의 과정』에서 한 다음과 같은 발언에서도 뒷받침된다. 즉 이나바는 "근래 고고학상의 탐구가 행하여져 평양에 있는 낙랑 및 고구려 유적이라든가, 경주의 신라유적 등의 조사가 계속 행하여져 그 결과가 조선사의 체계를 배양하기에 보다 좋다"고 쓰고 있다. (42) 고적 조사가 중시된 평양・경주 지역 조사는 조선사 편수가 중점을 둔 "역사의 기원" 문제에 고고학상의 근거를 제공해준

<sup>(38)</sup> 朝鮮總督府『大正五年度 朝鮮古蹟調査報告書』(前掲書),

<sup>(39)</sup> 黑板勝美「大同江付近の史蹟」(『朝鮮彙報』1916년 11월).

<sup>(40)</sup> 黑板勝美「朝鮮の歷史的觀察」(前掲誌).

<sup>(41)</sup> 朝鮮總督府 朝鮮史編修會「朝鮮史編修會事業概要」(前掲書) 15년.

<sup>(42)</sup> 稻葉岩吉「朝鮮史研究の過程」(前掲書) 196년.

것이었다.

#### 3. 구로이타 가쯔미의 고적보존정책과 그 배경

구로이타는 누구보다도 조선총독부가 실시한 조선사 편수와 고적조사사업에 힘을 기울였다. 이미 말한 바와 같이 이 두가지 사업이 총독부 입장에서일제의 한국 지배를 정당화하는 데 불가결함을 인식하였기 때문에, 구로이타는 그 목적에 따라서 두가지 사업을 동시에 추진하였다. 『조선사』 편수와고적조사는 말하자면 자동차의 두 바퀴와도 같은 관계였던 것이다, 여기서주목하고 싶은 것은 『조선사』 편수와 보완관계에 있었던 고적조사에 관한 것이다.

앞 장에서 말한 바와 같이 구로이타의 한국 사적(史蹟) 조사 보존에 판한 시책은 항상 일본(內地)보다 앞서 대담하게 전개되었다. 그는 일본 국내에서도 문화재의 보존 관리에 관해 가장 먼저 그리고 누구보다도 많은 제언을 하였으나, 그것들은 우선 식민지 조선에서 실시된 후에 일본에서 실행되었으며 더욱이 전후(戰後) 일본의 문화재보호법에도 활용되었다. 그래서 식민지 조선에서의 총독부의 고적조사사업은 청송의 대상이 되어 앞 장에서 인용한 후지타 료사구(藤田亮策)의 말대로 선정(善政)의 상징인 것처럼 이야기되어 왔다. 또 구로이타의 "그 땅의 것은 그 토지로"라는 현지주의(現地主義)나 한국의 문화재를 한국 내에 보존·전시했다는 사실 등을 들어 한국과한국인에게 영원히 자랑할 만한 문화정책이었다고까지 말하는 경우도 있다.

그러나 이러한 견해는 구로이타의 고적보존 정책의 배경에 대한 지식이 결여된 일면적인 평가라고 해야 마땅하다. 그의 문화재 보존에 관한 수많은 제언을 보면 그것은 반드시 유럽 제국의 정책이 그 전제가 되었음을 알 수 있다. 실제로 구로이타는 1908년부터 1910년에 걸친 2년간의 여행에서 구미제국의 국정(國情)을 빠짐없이 시찰하고, 각국의 대학연구실·도서관·박물

<sup>(43)</sup> 藤田亮策「朝鮮古蹟調査」(『古文化の保存と研究』前掲書) 340, 357년.

관·문서관을 조사하고 이탈리아·그리스·이집트 각국의 고대 유적을 답사·연구하였다. 그의 대부분의 제언이 이때의 체험이 밑바탕이 된 것이라는 점은 "西遊二年歐米文明記』, 『이집트의 발굴사업』에서 명백히 드러나 있다. (44)

이 저술들은 구로이타가 이탈리아·그리스·이집트 각지의 대규모의 발굴·조사·보존 실상을 얼마나 면밀히 관찰하고, 문화재의 보존과 미술관·박물관의 조직을 얼마나 자세히 조사했는가를 보여준다. 그는 그 현황을 기록한 목적이 일본 학자들에게 발굴사업이나 보존사업에 대한 주의를 환기시켜 참고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적고 있다. 또 그러한 관찰은 구로이타가 추진한 사업에서 실현된 것이 적지 않다.

여기서 주목하고자 하는 것은 그러한 것을 바라본 구로이타의 시선이다. 예를 들면 이집트 유적의 발굴·보존사업을 논할 때에는 그는 이집트에 대한 프랑스로부터 영국으로의 지배관계의 교체가 발굴조사에 어떠한 변화를 주었는가를 냉정하게 관찰하고 있다. (45) 또 그리스의 경우에도 영국, 독일, 프랑스, 미국 등의 열강이 다투어 발굴사업에 종사하고 있는 사실에 강한 관심을 표하고 있는 것이다. (46)

요컨대 구로이타는 이 2년간의 여행에서 19세기 이후의 식민지 고고학을 철저히 배웠던 것이다. B. 앤더슨의 말을 빌면 당시의 식민지 국가는 "너무판연한 마키아벨리적·법적 이유에서, 과거에 정복과 같은 정도의 애착을 가지게"되어 유적은 "박물관화되어 이것에 의해 세속적 식민지 국가의 훈장으로서의 새로운 위치가 주어졌다"는 것이다. (47) 구로이타는 구미여행 이후에도 동남아시아 각지를 조사했는데 그러한 여행을 통해서 식민지 열강이자국에 있어서, 또는 이집트나 그리스·동남아시아에서 대체 무엇을 어떻게행했던가를 눈으로 본 것이다. (48)

<sup>(44)</sup> 黒板勝美『西遊二年歐米文明記』(文會堂, 1911년 9월), 同「埃及に於ける發掘事業」(『考古學雜誌』1-6, 2-5, 1911년 2월, 1912년 1월).

<sup>(45)</sup> 黑板勝美「埃及に於ける發掘事業」(前掲誌).

<sup>(46)</sup> 黑板勝美『西遊二年歐米文明記』(前掲書)「包引 希臘の發掘事業と博物館」社会.

<sup>(47)</sup> Benedict Anderson *Imagined Communities -Reflections on the Origin and Spread of Nationalism*. London: Verso Editions. 1991 (白石さや・白石隆 譯『增補 想像の共同體』NTT出版, 1997년) 296면.

애당초 열강들은 19세기 초반에는 문명유적에 대해 아무런 관심이 없었다. 그러나 19세기 중엽을 지나면서 그들에 의해 고대 유물이 차례로 발굴되고, 측량되고, 촬영되고, 분석되어 또 전시되기 시작했다. 이 과정에서 식민지 국가의 고고학부문은 강력하고 권위있는 기구(機構)가 되어 유능한 학자가 배치되었다. 예를 들면 아시아에서 당시의 열강이 다음과 같이 거의 같은 시기에 같은 움직임을 취하고 있다. (49)

1898년	사이공	프랑스	극동학원 설립
1898년		네덜란 <u>드(동인</u> 도)	인도차이나박물관·사적과설립
1899년	□ <b> </b> €È□}	영 <del>국</del>	고고학과 설립
1901년	바타비아	· 네덜란드(동인도)	식민지 고고학위원회 설립
1907년	샾	프랑스	앙코르 관리사무소 설립

앤더슨에 의하면 제국주의자들은 식민지 국가의 유적 건설자와 당대 식민지 원주민은 같은 종족이 아니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다고 한다. 예를 들면 미얀마의 경우 장기적인 쇠퇴의 역사가 상정(想定)되어, 원주민은 현재로서는 그들의 선조가 이룩한 것과 같은 위업을 성취할 능력이 없는 것으로 간주되었다. 유적은 복원되어 그 주변 시설과 함께 설치됨으로써 원주민에게 자신들이 장기간에 걸친 위업을 이룰 능력도 자치 능력도 결여되어 버렸다는 것을 알리는 역할을 완수했다는 것이다. (50)

이러한 사실을 이해한다면 구로이타나 데라우찌 등이 고문화재를 현지에 보존하는 일을 고집한 이유가 어디에 있었는지 쉽게 판명될 것이다. 식민지 에서 발굴된 고대유적이나 유물은 식민지에 없어서는 절대 안되는 것이다.

이러한 구로이타의 문화전략은 현대 미술분야에서도 응용되고 있었다. 후 지타 료사구(藤田亮策)에 의하면 그는 "시노다(篠田) 이왕직(李王職) 장관 과의 의논"에 의해서, 덕수궁에 건립된 이왕가(李王家) 미술관에 메이지(明

<sup>(48)</sup> 黑板勝美「南歐探古記」(『歷史地理』 16-1, 18-2, 1910년 7월, 1911년 8월),「古跡を巡りて(上) ーマカオからインドまで」(『大阪毎日新聞』 1928년 8월 28월~9월 6일 연재),「古跡を巡 りて(中) ーベルシャの旅」(『大阪毎日新聞』 1928년 10월 19월~25일 연재),「古跡を巡りて(下) ー 上古文明の搖籃の地イラク・シリヤを歩くの記』(1928년 10월 26일, 27일 연재) 등을 참조.

<sup>(49)</sup> Benedict Anderson 前掲書 306년.

<sup>(50)</sup> 同上, 295면.

治) 초년 이후의 일본 회화·조각·공예 등 근대 미술작품을 끊임없이 교체해가며 진열하였던 바, 이 전시는 1933년부터 1943년까지 계속되었다고 한다. (51) 그 목적은 "한국 재주자(在住者)의 미술의식을 높여, 근대 미술에 직접적으로 풍요한 생활로 유인한다"라는 것이었다. (52) 이러한 대담한 활동이 『조선사』 편수나 고적조사의 사업과 밀접한 연관을 맺고 있는 것은 말할 것도 없다. (53)

유적이 세속적 식민지 국가의 훈장으로서의 새로운 지위를 부여받는 점은 이미 언급하였다. 부연하면 기술적으로도 우수한 대량의 고고학적 보고서가 제작된다는 사실이 그 훈장이 무한히 일상적으로 복제되고 그로써 그것이 국가의 힘을 나타낸다는 점도 지적될 수 있다. 복제기술의 시대에 성숙된 당시의 고고학은 극히 정치적인 의미를 갖게끔 되어 있었던 것이다. (54) 총 독부가 고적도보나 고적조사보고를 정성들여 편찬한 것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었던 것이다.

후지타 료사구에 의하면 데라우찌 총독은 『조선고적도보』를 전부 비서관실에 보관시키고 내외의 귀빈에게 직접 서명하여 선물하고 특히 각국 영사나 외국의 이름난 사람에게는 애써 널리 선사했다고 하는데, (55) 그것이 무엇을 의미했는가는 더 말할 필요도 없다.

일본 또한 19세기말 이후의 제국주의 조류 속에서 식민지 국가가 역사(고 고학)와 권력을 상징한 그 특유의 상징 방법을 주의 깊게 관찰하여 배운 것 이다. 구로이타는 누구보다도 이러한 것을 먼저 숙지(熟知)하고 그것을 식

<sup>(51)</sup> 藤田亮策「朝鮮古蹟調査」(『古文化の保存と研究』前掲書) 337면、더욱이 黑板勝美가 획책했던 이 전시에 대해서는、李美那 「李王家德壽宮日本美術展示」(『東アジア繪畵の近代 -油畵の誕生とその展開」静岡縣立美術館、1999년)을 참조

<sup>(52)</sup> 藤田亮策「朝鮮古蹟調査」(『古文化の保存と研究』前掲書) 337면、李王職 編『李王家德壽宮日本美術品圖錄』(李王職, 1933년)의 序(篠田治策)에도 이것에 대응하는 말이 보인다.

<sup>(53)</sup> 李美那 「李王家德壽宮日本美術展示」(前掲書)는「展示」가 실현되는 과정을 분명히 하는 것과 함께 그것이 가진 정치성, 당시에 있어서 조선측의 반응, 黑板가 달성한 역할 등을 분명히 하고 있다.

<sup>(54)</sup> Benedict Anderson 前掲書 297년.

<sup>(55)</sup> 藤田亮策「ビリケン總督-朝鮮の思い出(1)」(『親和』52. 1958년 8월)、同「朝鮮古 蹟調査」(『古文化の保存と研究』前掲書) 333명.

민지 조선에서 실천한 인물이라 해도 좋을 것이다.

#### 맺음 말

지금까지 논한 바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우선 첫째 구로이타가 총독부의 조선사 편수와 고적조사 보존의 두 가지 사업의 계획 입안·추진에 있어서 가장 중심적인 역할을 해왔다는 것. 두 번째 그 두 가지 사업은 상보적인 관계에 있어서 당초부터 시종일관 일본의 식민지 지배 정당화를 목적으로 행해졌었다는 것. 세 번째로 구로이타는 이 두 가지 사업뿐만 아니라 다른 영역에도 식민지 지배정책으로서의 문화사업에도 적극적으로 가담했다는 것. 네 번째로 그러한 사업들은 구로이타가 유럽 제국에서 직접 보고 들어배운 19세기말 20세기초의 제국주의 국가의 고고학(역사학)이 밑바탕이 되었다는 것이다.

구로이타라는 한 사람의 역사가를 통해서 조선사 편수와 조선고적 조사보존이라는 두 가지 사업을 검토하면, 이른바 문화사업에 대해 종래에는 논하지 않았던 문제가 떠오르게 되는 것이 아닐까. 그것은 동시에 일본 근대역사학이 갖는 하나의 측면과 관련이 있다고 생각된다. 즉 근대 일본의 역사학은 가장 먼저 독일을 중심으로 한 유럽의 역사학을 배웠지만, 그 역사학이 일본의 식민지 지배에 있어서 철저하게 이용되었다는 사실이다. (56) 일본이 식민지 한국에서 행한 조선사 편수와 고적조사 보존사업은 19세기말 유럽 제국의 역사학연구 동향을 빼놓고는 논할 수 없는 것이다.

이 글에서는 구로이타가 주목한 유럽 제국의 고고학에 대해서만 언급했지만, 구로이타가 『조선사』 편수에서 구사한 작업수단인 고문서학(古文哲學)·문헌학은 우선 독일어권에서 1848년 이후에, 그 외의 나라에서는 1870년 이후 완성되었던 역사서술의 과학화와 제도화의 기본원리였다. 애초부터 유럽에서는 1870년 이후 독일을 모델로 한 역사학의 직업적 전문화가 놀라운 속도로 진행되어, 모든 나라의 역사가들은 구체적인 연구방법의 중요한

<sup>(56)</sup> 旗田巍「日本における東洋史學の傳統」(『歴史學研究』270, 1962년 11월).

요소를 독일로부터 도입해왔다.(57)

모순되는 것처럼 보일지 모르나 유럽에 있어서 19세기의 과학화는 역사의 이메올로기화와 깊이 연결되어 있었다. 여기서 말하는 역사의 과학화는 결코 정치적 중립의 의미로서의 객관성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역사학은 국사적인 성격을 갖고 있거나 시민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것에 적극적으로 봉사하는 방향으로 흐르고 있다고도 간주된다. (58) 근대 일본이 모델로 한유럽의 역사학은 국민적 화해와 애국주의적 동원의 수단으로서의 성격을 두드러지게 나타내고 있다.

구로이타 자신도 구미 사학계의 추세를 시찰하고 항상 이에 입각한 눈길 로 유럽 제국의 역사학계 동향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 거기에는 시 종일관 국민교화를 위한 역사학이 추구되고 있었다. (59) 이러한 점을 토대로 다음과 같은 점을 추론해 볼 수 있을 것이다.

구로이타가 두 사업에 적극적으로 관여한 개인적인 동기로서 그가 모델로한 당시의 유럽 역사학을 식민지 한국에서 실험하고 시행(試行)하여, 그 중어떤 것은 잘 다듬은 후에 일본에 본격적으로 전개하려는 의도가 있었던 것은 아닐까 하는 것이다.

이미 논급한 바와 같이 고적이나 명승기념물에 관한 보존 규칙이나 보존 령은 구로이타의 주장대로 제정 시행되면서 그것들은 (일본)본토보다 먼저시행된 일본 최초의 "우수한" 법령(시책)이었다고 후세의 고고학자들에게 평가받고 있다. (60) 구로이타에게 있어서 식민지 조선은 절차를 거치지 않고 직접 총독 이하의 책임자와 의논함으로써 자신의 학문적 신념을 시험적으로 행할 수 있는 절호의 장이었던 것이다.

더욱이 그는 발굴 조사한 유물을 각지의 박물관에 진열하고 방대한 도감

<sup>(57)</sup> Georg G. Iggers Geschichtswissenshaft im 20. Jahrhundert Ein Kritischer Uberblick im internationalen Zusammenhang, Gottingen: Vandenhoech & Ruprecht GmbH & Co.KG 1993 (早島瑛 譯『20世紀の歷史學』(晃洋書房, 1996 년) 24년), Gerard Noiriel Sur la "crise" de l'histoire Paris. Editions BELIN 1996 (小田中直樹 譯)『歷史學の危機』(木鐸社, 1997년) 186년.

<sup>(58)</sup> Georg G. Iggers 前揭書 25电.

<sup>(59)</sup> 黑板勝美『西遊二年歐米文明記』(前揭書).

<sup>(60)</sup> 藤田亮策「朝鮮古蹟調査」(『古文化の保存と研究』前掲書) 342-346년.

과 보고서를 제작하는 데에도 힘썼으나, 그러한 제작은 곧 그것들을 지배하는 일과 그것에 대해 권위를 갖게 하는 일에 목적이 있었던 것임에 틀림없다. 과거에 있었던 것을 분해하고 배치하며 또 도식화하고 색인화하여 기록해서 그 대상을 알게 한다는 것은 마치 그것을 알고 있는 것처럼 존재시킨다는 것에 목적이 있다. (61) 결국 이러한 행위 자체가 한국이라는 식민지의시간과 공간을 지배하는 것에 의미가 있었던 것이다. 구로이타가 『조선사』 편수와 고적조사보고에 담은 독자적 의도는 이러한 의미가 있었다고 생각되어 진다.

또한 유의할 점은 그 결과는 결코 식민지 조선에만 적용된 것이 아니었다는 점이다. 구로이타는 그러한 수법을 일본에서도 그대로 구사하고 있다. 그 예로 후지와라규(藤原宮) 유적 발굴을 들 수 있지만 그것은 구로이타의 유적에 대한 표상적(表象的)효과를 전제로 하지 않으면 이해할 수 없다. (62)

최근 일본의 어느 잡지에 고고학의 동향에 관한 특집이 편성되어, 이스라 엘·나치독일·중국·북한 등 여러 나라의 고고학이 영토문제를 포함한 국가이데올로기에 얼마나 자주 동원되었던가를 강조하고 있다. (63) 그렇지만 전쟁 전의 일본 고고학이 그러한 논의의 대상이 되는 일은 결코 없다. 지배도구로서의 고고학에 대한 반성도 없고 자각도 없기 때문에, (64) 현재의 자

<sup>(61)</sup> Edward W. Said *Orientalism* New York: George Borchardt Inc. 1978 (今澤紀子 澤『オリエンタリズム』平凡社, 1986년) 32년.

<sup>(62)</sup> 예를 들면 1959년부터 본격적으로 발굴 조사되어,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平城京에 대한 다음과 같은 평가가 있다. 즉「奈良・平城京에 도성이 위치한 것은 8세기초인 和銅 3년(710)의 일이다. 그러나 그곳에 도성이 있었던 것은 불과 70여년이었다. 그것에도 불구하고 21세기를 앞에 둔 지금까지 약 1300년간 일본인의 "마음의 고향"으로 계속 살아 있는 것은 왜일까」(奈良國立文化研究所『なら平城京展'98』 奈良市). 이러한 언급이야말로 黑板가 藤原宮 發掘에서 찾았던 表象的 효과였던 것으로 생각된다. 덧붙여 黑板의「遺蹟遺物保存の實行機關と保存思想の養成」(前揭誌)에는 다음과 같은 말이 있다. 「모든 사람은 자기 나라를 사랑한다. 그리고 자기 나라의 山水에 외거하여 그 壯大하고 또는 우아하고 아름다운 감명을 받음과 함께 오랜 기간의 역사적 기억을 환기하고, 古代의 史蹟遺物에 의하여 매혹된다는 것같이 모든 것이 되지 않으면 이 보존법의 정신은 충분히 달성될 수 있는 것이다」.

<sup>(63)</sup> 田中琢「ナショナリズム」(『AREA Mook 考古學がわかる』朝日新聞社, 1997년 6월), 穴澤和光「世界考古學の系譜」(『AREA Mook 考古學がわかる』前掲書).

<sup>(64)</sup> 西川宏 「日本帝國主義下における朝鮮考古學の形成」(『朝鮮史研究會論文集』 7.

신에 대한 시각에는 맹점이 생겨 전체적인 모습을 파악하는 데 곤란에 빠질 수밖에 없다고 생각된다. 그러므로 필자는 식민지 시대 역사학의 검증이 현 재 일본 역사학의 존재 그 자체를 문제삼는 의미도 가질 수 있다고 믿고 있 다. (필자:일본 와세다대학 문학부 교수)

<sup>1970</sup>년 6월)은 일본식민지 고고학에 관한 드문 비판의 하나이다.